

## 출판 번역 현황에 대한 연구--편집자 면접 조사를 바탕으로

이상원, 이항

(BK 21 통번역 전문화 프로젝트, 한국외국어대학교)

### 1. 서론

도서 출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역은 여러 형태의 번역 중에서 특히 많은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문 번역사로서 출판업계에서 활동하도록 도와준다는 각종 자격시험이나 단체가 수많은 지원자를 끌어 모으고 있고 번역 출판 도서에 대한 번역 비평도 매일이 다시피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심과 논의는 번역 출판 도서가 우리나라 전체 도서 시장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sup>1)</sup>, 번역사가 자기 이름을 공개한 상태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분야라는 점, 결과물인 번역 도서가 무제한의 독자를 대상으로 공개 소비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한다(이상원, 2003).

1)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집계한 2001년 출판 통계를 보면 총 발행 종수 34,279종 중 번역도서가 9,680종으로 28.2%를 차지한다. 베스트셀러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이래 연간 베스트셀러 20권 내에 번역 출판도서가 4-8권씩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도서 출판을 위한 번역(이하 ‘출판 번역’)은 이제까지 번역학의 독자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출판번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다른 번역과 비교해 어떤 차이점과 특성을 가지는지, 현재 출판 번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 결과물은 극히 미비하다. 다만 출판 번역의 결과물인 번역 도서 텍스트가 번역학 이론 검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어 왔을 뿐이다.

본고는 출판 번역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출판 번역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편집자를 통해 출판 번역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출판 번역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원서 및 번역사 선정, 번역 과정, 편집 작업을 알아보고 여기에 편집자 개인이 가진 출판 번역 시장에 대한 견해, 번역사에 대한 처우 실태를 확인하고자 했다.

## 2. 출판 번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는 도서 형태로 출판되기 위한 번역을 관심사로 한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외국어로부터 한국어로의 번역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한다. 다시 말해 본고의 ‘출판 번역’은 외국어로 된 기존 서적 혹은 원고를 출발 텍스트로 하고 한국어판 서적을 도착 텍스트로 하는 번역이다.

출판 번역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까? 이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출발 텍스트의 분석 - 전환 - 재구조화를 통한 도착 텍스트의 생산’이라는 Nida(1964)의 번역 과정은 출판 번역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출판 번역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번역서 및 번역사 선정’, ‘번역사가 납품한 번역물에 대한 교정 교열 및 편집’ 등 번역사의 번역 전후에 존재하는 단계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기준으로 번역사가 선정되는지, 번역물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등은 최종 결과물인 출판 도서의 번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출판 번역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 번역 출판할 원서 및 번역사의 선정

- 번역 발주
- 번역사의 번역 및 번역사와 출판인의 의사소통
- 번역 납품
- 번역물 편집 및 출판

이러한 출판 번역 과정이 총체적으로 다루어진 선행 연구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선행 연구 대부분이 권력 관계에 치중하여 출판인과 번역사의 대립 양상을 지적하고 있다. Lefevere(1992, 9)는 출판 번역의 시스템을 통제하는 세 요인으로 전문인 집단(비평가, 교사, 번역사), 후원인 집단(권력을 가진 개인, 출판인, 언론, 문학 관련 연구 교육 기관), 지배적인 시학(dominant poetics)<sup>2)</sup>의 세 가지를 제시하며 출판인을 두 번째 후원인 집단에 포함시킨다. 이 후원인 집단은 다시 이데올로기 요소, 경제적 요소, 지위 요소의 세 가지를 구성 요소로 가지며 출판인 또한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기서 출판인이라 번역사를 고용하는, 그리고 번역 결과물을 편집하는 존재이다. 출판인은 출판 번역 전체 과정을 총괄하면서 번역사와 독자를 잇는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출판인은 번역사가 납품한 번역물을 수정, 편집하고 이에 따라 번역 결과물의 공동 생산자가 된다. 그런데 번역 과정에서 번역사의 언어적 선택과 출판인의 이데올로기적 선택이 충돌할 경우에는 늘 후자가 이기게 된다(Lefevere, 1992, 39)고 한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주체의 선택과 구체적인 번역 방법론 모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Fawcett(1995, 189)는 출판 번역 네트워크가 일종의 권력 게임이며 최종 생산물은 결국 편집인들의 손에 좌지우지된다고까지 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출판인은 번역사에게 저작권이나 인세를 보장하는데 대단히 인색하다(Venuti 1995, 9-10). 이는 곧바로 지위의 문제로 연결된다. 출판 번역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번역사는 대단히 미약한 지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서 번역이 아닌, 뉴스 매체 번역을 대상으로 했던 Kang(2004, 88-94)도 발주자(initiator), 즉 뉴스 매체의 편집인과 프리랜서 번역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적 권력 관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권력 관계는 번역 전략에도 반영된다. 출판 번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2) 이는 지배적인 문학 장르, 문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 등을 말한다.

행사하는 출판인, 더 나아가 후원인 집단은 원문 텍스트 이해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출판인은 도착어로 ‘매끄럽게 잘 읽히는’ 번역 방법론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출판인들을 대상으로 한 Munday(1997, 170; Munday, 2001, 154에서 재인용)의 설문 조사 결과도 이와 일치한다.

Venuti(1995, 20)는 이러한 번역 방법론을 현지화(domestication), 즉 도착어의 문화적 가치에 맞춰 이질적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이라 부르며 비판한다. 현지화 전략 하에서 번역사는 한층 더 눈에 띄이지 않는 미약한 존재가 되고 기존의 불평등적 권력 관계 역시 더욱 악화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Venuti는 번역사들에게 적극적인 타지화(foreignization)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고는 출판 번역에서 중요한 존재로 드러난 출판인을 대상으로 출판 번역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 3. 출판 번역 현황에 대한 실증적 조사 연구

출판 번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실증적 조사 연구의 방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 방법

출판 번역 과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본고의 연구 방법은 편집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이다. 조사 대상 편집인으로는 경력 5년 이상, 편집권수 50권 이상의 편집자 4인을 선정하였다. 출판인은 크게 보면 출판사에 소속된 인력, 즉 사장, 주간, 편집인, 영업 담당, 디자인 담당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나 번역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 것은 편집자라고 판단하였다. 편집자는 번역사와 직접 접촉하며 번역 편집을 책임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출판 번역 과정의 실체를 탐색하는 연구인만큼 조사 방법은 비구조화된 심층 면접을 선택하였다. 면접 질문지에는 최소한의 개방형 질문만 담았고 면접 과정에서 피면접자가 자유롭게 관련 사항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 질문지는 ‘응답자 배경에 관한 질문’, ‘원서 및 번역사 선정 과정에 대한

질문’, ‘번역 과정에 대한 질문’, ‘편집 작업에 대한 질문’, ‘출판 번역 시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 ‘번역사 처우에 대한 질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심층 면접은 사전 약속을 하고 출판사에 찾아가 질문지를 전달하고 피면접인이 구두로 대답하는 내용을 연구자가 녹음 및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응답 내용에서 의문이 있을 경우 연구자가 즉석에서 추가 질문을 던졌다.

심층 면접은 2004년 4월 16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하였고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편집자 한 사람 당 30분 - 1시간이었다.

## (2) 연구 결과

심층 면접에 응한 편집자 4인은 33세-38세로 모두 대졸 출신이었다. 편집 경력은 5년-11년, 편집 권수는 60-110권이었으며 국내서와 번역서 편집을 모두 경험하였다. 면접 질문지의 구성에 따라 응답을 제시하였다.

### 1) 원서 및 번역사 선정 과정에 대해

원서 선정은 번역되는 외국어 도서 혹은 텍스트의 선택을, 번역사 선정은 도서 번역을 담당할 번역사의 선택을 말한다.

원서 선정의 주체는 대개 편집자와 사장이 되며 간혹 영업 담당자가 선정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원서 선정 방법은 크게 인터넷 등을 통한 편집자 본인의 검색, 전문가의 소개, 에이전시 중개로 나누어지는데 본고의 조사 대상 편집자들은 직접 해외 서적을 검색해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고르는 경우가 많았다. 원서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사항은 영리 법인인 출판사의 특성 상 상업성, 즉 시장에서의 판매 가능성이었다. 그 외 출판사가 가지는 고유한 성향, 출판 방향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도 고려된다고 한다.

번역사 선정은 편집자가 사장 등 운영진에게 추천해 허락을 받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대개의 경우 해당 도서와 장르가 동일하거나 주제가 유사한 책을 기존에 번역, 출판했던 경험자 중에서 편집자가 문체 특성 등을 감안하여 번역사를 선택한다. 때로는 다른 출판사 편집자로부터 추천을 받기도 한다. 번역사의 전공은 그리 중시되지 않는다. 위험부담 때문에 초보자는 선뜻 쓰지 않으려 하며 불가피한 경우 샘플 번역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 번역을 의뢰한다. 대체

로 전공 교수 등 유명인보다는 전문 번역사를 선호하는 경향이다.

결국 원서 및 번역사 선정 과정에서 편집자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2) 번역 과정에 대해

번역사에게 번역을 의뢰한 후 번역 결과물이 납품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의뢰 시점에서 편집자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지, 중간 중간에 번역사와 편집자가 의견을 교환하는지를 물었다.

우선 평균 번역 기간은 원고지 천 매 분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사가 전업인지, 겸업인지에 따라, 책의 난이도나 시의성에 따라 번역 기간은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또한 편집자는 번역 발주시 번역사에게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책을 광고해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알리면서 그에 어울리는 번역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편집자가 책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번역을 발주하면서 번역 과정 중에 책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문체 측면에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전달되기도 한다.

네 명의 편집자 중에서 번역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번역사와 편집자 사이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경우와 그렇지 않다는 경우는 반반으로 나뉘었다.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알아 보았더니 번역사가 번역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먼저 알리고 의논해 온다는 응답, 편집자 측에서 번역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책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 3) 편집 작업에 대해

편집 작업은 번역물 납품 이후 출간하기까지 번역물이 거치는 교정 교열, 수정 과정을 말한다. 편집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 편집 정도, 장르별 차이 등을 물었다.

편집 기간은 짧으면 한 달 반, 길면 1년까지도 걸리는 식으로 매우 다양하다. 번역 원고가 들어오면 일단 전체를 훑어 살펴보면서 책의 전체 내용과 번역 수준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 대개 네 차례에 걸쳐 교정 교열을 한다. 이중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초교로 열흘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초교나 재교는 외부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국한되며 대개는 담당 편집자가 책임지고 편집을 맡는다.

편집부에서 오탈자, 띄어쓰기, 비문 수정 등 기본적인 교정 교열만 하면 되는 경우는 전체 납품 번역물의 70% 정도이다. 하지만 편집자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번역일 확률은 5-15%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도저히 쓸 수 없는 번역 실패 상황도 전체의 10%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경우 출판사 내에서 혹은 외주를 통해 원본과 문장을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다시 번역해 가는 작업을 거치기도 한다. 번역 실패는 전적으로 그 번역사를 섭외한 편집자의 잘못으로 간주된다. 또한 번역 실패 상황이라면 그 번역사에게 다시 수정을 의뢰해 보았자 개선의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출판사 내에서 해결하는 일이 많다.

내용 침삭이나 번역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편집자가 번역사와 의견을 교환하는지의 여부를 물었더니 그렇다는 경우와 그렇지 않다는 경우가 반반 정도로 나타났다. 번역에 문제가 많은 경우에는 의견을 교환해 보았자 상황이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편집부 내에서 해결하는 편이다. 편집자에 따라서는 자기 주장이 강해 역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수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심한 경우 법정 충돌로 비화하기도 한다. 반면 번역사가 편집 과정에 공동 참여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편집자도 있으며 이 때에는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다. 대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지나친 직역투나 번역투, 비문 남발, 책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문체 등이다.

편집 작업은 장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편집자들은 번역사가 해당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용어나 개념, 인명, 지명 등에서 오류를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인문서 편집이 가장 쉽다고 응답했다. 반면 실용서는 내용과 제목으로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아야 하는 책이기 때문에 번역사가 뛰어난 언어 감각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편집자도 손을 많이 대는 편이라고 한다. 문학서는 문체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번역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한다.

번역서 편집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애로 사항으로는 다른 무엇보다도 품질 미달의 번역 원고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편집자들은 이것이

번역사의 낮은 보수, 그 결과로 빚어진 유능한 번역사의 수적 부족 등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문제가 일반적인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게 된다. 물론 편집자가 편집 과정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수정 사항에 대해 번역사와 일일이 의논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절반 정도 있었기 때문이다.

#### 4) 출판 번역 시장에 대해

편집자들이 한국의 출판 번역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번역 수준이 책의 시장성 혹은 상업성을 크게 좌우한다고 여기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우선 편집자들은 번역사가 납품하는 번역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출판이 완료된 국내 번역 도서의 전반적인 번역 수준에 대해서는 편집부의 손을 거쳐 품질이 균질화되는 만큼 나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 출판 번역의 장점은 번역 속도가 빠른 것이라고 하였다.

번역 수준이 책의 시장성을 좌우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편집자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편집자가 있는가 하면 지독히 나쁜 번역만 아니라면 큰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여기는 편집자도 있었다. 전자의 편집자들은 이제 번역 도서의 독자들도 과거와 달리 출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번역 비평에 나선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면 후자의 편집자들은 일단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 된다면 번역 수준보다는 원저자의 지명도, 홍보 등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5) 번역사 처우에 대해

번역사에 대한 처우는 물질적인 측면과 비물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물질적인 측면의 처우, 즉 번역료는 인세 또는 매절로 지급된다. 인세는 4% 안팎, 매절은 원고지 한 매당 3000-3500원 수준이다. 편집자들은 번역료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인세 또는 매질의 번역료 지급 방식도 번역사에게 불리하게 결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즉,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책은 매질로 계약하고 반면 별로 팔리지 않을 책은 인세로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매질 번역료는 번역 기간, 번역사의 유명세, 번역 언어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번역사에 대한 비물질적 측면의 처우는 역자 약력, 역자 서문, 역주 등 해당 도서에서 번역사의 가시성(visibility)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통해 파악하였다. 우리 번역 출판 도서는 모두 예외 없이 역자 약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속표지에 역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이 고작인 해외 번역 서적에 비해 번역사의 역할을 한층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역자 서문이나 후기는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 전문가가 쓰는 추천사로 대체되기도 한다. 역주는 편집자가 굳이 요구할 필요도 없이 번역사가 번역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넣게 된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역주를 넣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편집자와 번역사 사이에 의견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 5. 결론

본고는 편집자 대상의 심층면접을 통해 출판 번역의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판 번역에서 편집자가 원서 및 번역사 선정, 납품된 번역물의 편집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번역사 선정과 번역물 편집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단계들로 보인다. 편집자는 번역물의 편집을 책임지기 때문에 번역사 선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이론적 연구 결과와는 달리 편집자와 번역사 사이에서는 불평등적 권력 관계가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았다. 물론 물질적 대우의 측면에서는 번역사의 취약한 지위가 분명히 나타났고 또한 번역물 수준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번역사와 별도의 의사소통 과정 없이 첨삭 수정을 진행한다는 편집자가 있는 했다. 하지만 번역사를 동료 편집자 정도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견을 교환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것이 편집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셋째, 편집자들은 번역사가 납품하는 번역물의 품질에 많은 불만을 나타냈다. 납품 번역물이 만족스러운 경우가 전체의 5-15%에 불과하다는 점은 충격적 이기까지 하다. 본 조사에서 편집자가 생각하는 만족스러운 번역의 기준이 분명히 밝혀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독자가 읽기에 가장 편안한 번역’, ‘한국어를 문법에 맞게 제대로 구사하는 능력’, ‘제대로 말이 되어서 읽히는 문장’ 등의 요구사항이 나온 것을 보면 기본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납품 번역물이 상당히 많은 듯하다.

넷째, 출판 번역의 결과물인 번역 도서는 번역사와 편집자의 공동 작업물로 보아야 한다. 편집자는 네 차례의 교정 교열 단계를 통해 번역사의 납품 번역물을 수정하는 만큼 결과물인 출판 도서의 번역 품질에 대해서도 책임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편집자들은 출판 번역의 수준이 책의 시장성을 얼마나 좌우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는 바꿔 말하면 독자들이 출판 번역에 기대하는 바, 혹은 용인하는 바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번역 수준이 시장성과 직접 관련된다는 주장은 독자들이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번역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되고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번역 수준이 시장성과 그리 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독자들이 최소한의 수준만 넘어서면 만족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편집자들의 편집 작업이 결국은 독자들의 요구 충족을 목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출판 번역 품질에 있어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다.

출판 번역에서는 번역사, 편집인(출판인), 그리고 독자가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 이들이 출판 번역 과정에서 각기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추후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상원. 2003. 「출판번역: 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논문집 7집, 145-157
- Fawcett, P. 1995. "Translation and Power Play." *The translator* 1.2, 177-192
- Kang, Ji-Hae. 2004. "Participation Framework in Translation: A Case Study of the Translation Process and the Power Relationship in the Media." Ph.D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Lefevere, A.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New York: Routledge.
- Munday, J.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New York: Routledge.
- Nida, 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J. Brill.
- Venuti, L.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K C I

[Abstract]

### The Process of Translation for Book Publication

Lee, Sang Won, Lee, Hyang

(Brain Korea 21 Speacialized Project in Translation and Interperation,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deals with translation for book publication, which earns much interest from the public, whereas has been studied rarely. To identify the process of this kind of translation, depth interview with four editors of publishing companies was done.

Overall result is as follows: 1) editors manage the whole translation process from selecting the translator to editing translator's translation. 2) asymmetrical power relationship between translators and editors was not obvious as scholars suggest. 3) editors are not 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translators' translation. 4) the result translation has to be considered as cooperated work of translators and editors. 5) editors don't agree on readers' expectation of translation quality.



▶Key Words: translation for book publication, editors, asymmetrical power relationship between translators and editors, translation process, editing process, choosing translators